

문화재복원 「정보시스템」개발 훼손된 부분 컴퓨터로 역추적 - 과기처 성기수 씨

한국일보 11月 「인터뷰」

「최첨단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훼손된 문화재를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 일은 요즘 국민들의 관심사인 북한의 핵시설을 찾아내는 작업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지난 14일 미륵사지석탑 부석사 조사당 벽화 등 훼손 문화재복원에 컴퓨터를 활용한 「컴퓨터 영상처리기술의 문화재활용시스템」 개발을 중간 발표해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과기처 성기수 시스템 공학연구소장(57)의 말이다. 그는 두 국보의 원형을 찾는 시스템개발은 「컴퓨터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한국역사의 1천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작업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지난 8월부터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전부 활용해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강조한다.

벼락맞아 부서져 현재 6층만 남아 있는 미륵사지 석탑은 6층까지 조립된 과정을 분석하고 (탑 부재 10개를 조립하는 방법만 1백만 가지) 없어진 부재의 형성을 역 추적하는 방법으로 원래 모습을 복원중인데 수천만 가지의 조립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현재까지 분석으로는 미륵사지탑은 중간발표 때처럼 7층이 아니라 1천1백개 부재(돌조각)를 조립한 층으로 밝혀져 내년 봄 최종 복원도는 9층탑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는 색이 지워진 부석사 벽화의 경우도 적외선으로 벽면을 촬영해 색의 성분을 추출한 후 고미술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해 컴퓨터가 가진 16만7천개의 색깔을 밑그림 위에 다시 칠하는 과정을 반복해 원래 벽화모습으로 복원중이라고 설명한다.

「그리스·일본·이탈리아 등에서는 이미 사용된 컴퓨터기술의 문화재 복원 활용은 5천년 역사의 한국에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할 분야입니다」 성박사는 서울대 공대를 나와 미 하버드대에서 우주공학으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88서울올림픽 경기정보시스템(Gions)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는 등 한국 컴퓨터공학의 개척자 중 한사람이다.